

비교역사방법의 이해: 민주주의 연구에 관한 방법론적 확장*

서문기**

이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비교사적 접근법의 가장 큰 특징은 자본주의와 민주화과정
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 방법론적으로나 이론적으로 서로 다른 접근들의 통합을 시도하
고 있다는데 있으며, 또 다양한 지역에 걸친 역사분석을 통해 그 일반화의 문제를 풀려
고 노력한다는 사실이다. 방법론적으로는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접근방법인 양적 분석
(quantitative analysis)에 기초한 국가간 횡적 비교연구(cross-national study)와 질
적 분석(qualitative analysis)에 기초한 비교역사연구(comparative historical
study)의 전통적 구성에서 빚어지는 긴장과 갈등의 균형점을 찾고자 한다. 이론적으
로는 발전이론의 대표적 패러다임인 근대화이론과 종속이론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
해하고자 하며, 그 결과 하나의 대안으로서 정치경제학적 분석방법을 발전시킨다. 이
분석들은 크게 세 가지의 권력균간의 균형상태(the balance of power) — 계급권력
(class and class coalitions), 국가권력(state apparatus), 초국가권력
(transnational power relations) — 가 민주주의 정치체제의 제도화와 붕괴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이론적 명제를 제공하고 있다. 다양한 지역의 민주화 과정을 체
계적으로 추적함으로써 계급구조의 변동으로 인한 민주주의의 도래와 진보라는 결론
에 도달하고 있는 비교사적 접근법은 베버와 무어의 이론적 전통에 힘입어 비교역사방
법의 적용범위를 확장시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상관관계를 이해하는데 많은 이론
적 함의를 던져주고 있다.

* 본 연구에 도움을 주신 루쉬마이어, 임현진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특별연구원. 전공분야: 사회변동과 발전론 및 사회통계학, 사회정책.
주요연구업적: Developmental Transformation in South Korea (Praeger, 1998), "한국 국가관료제와 사회발
전", "삶의 질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사회의 안전관리시스템의 모색". 연락처: 서울대학교 사회발전
연구소

1. 머리말

일반적으로 민주화과정의 차원은 학생, 노동자, 농민, 시민 등 사회 각층의 시위 형태로부터 군사반란과 사회혁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저항세력의 흐름으로 이해될 수 있다. 더욱이 기존의 사회질서에 대한 역동적인 움직임들은 개발도상국에서 빈번하게 또 강도 있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현상의 기원과 과정, 그리고 결과들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틀들이 제시되어 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수년간의 사회과학 연구분야는 역사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경험적인 중요성과 더불어 민주주의를 둘러싼 사회경제적 또는 정치적인 토대에 관한 비교연구로 특징되어질 수 있다. 그 가운데 루쉬마이어와 휴버, 그리고 스티븐스에 의해 씌어진 『자본주의 발전과 민주주의』(1992)는 민주화과정에 관한 비교사 연구문헌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비교역사연구 분야에서의 이들의 분석방법 및 이론적 공헌과 함께 한계점을 이해함으로써, 어떻게 비교역사방법이 실제 사회현상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며, 또 앞으로의 민주주의에 관한 비교연구의 밑거름이 되고자 하는 바램에서 출발한다.

민주화과정에 대한 분석들은 실제적 상황에 관한 것이든 또는 다른 역사적 사건의 유추이전 간에, 기본적으로 인간과 사회, 그리고 역사에 관한 지적인 시각을 토대로 형성된다. 또한 사회의 구조적 변동은 어느 지역이든지 그 경제적 관계뿐만 아니라 정치적 질서와 문화적 관습 및 전통의 변화를 수반한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서구 자본주의, 동구 사회주의, 그리고 제3세계에서의 민주화과정 등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해석은 사회변혁의 한 축으로서의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을 가져다준다. 요컨대 민주화과정에 대한 이론적 관심은 기계적인 전체사회이든 또는 유기체적인 조직체이든, 아니면 자동화된 미래사회이든가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 관한 형상화의 투영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하나의 사회질서가 주어진 것으로 당연시되든 또는 의문시되든, 변화의 중심축인 인간의 모습이 역사의 흐름을 이끌어 가는 전위적 행위자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탐욕과 좌절을 축적해 온 사회적 힘에 의해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 예컨대, 동전기계와 같은 — 모습으로 그려질 수도 있다.

민주화과정에 관한 고전적인 형상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축과 그 회전속도에 관한 것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역사순환론을 예로 들 수 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역사 속의 민주화과정의 모습은 소수의 지배집단과 다수의 피지배집단 사이의 갈등과 투쟁으로 이해되어 진다. 이러한 다소 광범위한 개념들은 동양의 왕조체제나 근세 서구의 정치체제, 또는 오늘날 남미를 비롯한 많은 개발도상국에도 적용이 될 수 있다. 기존질서에 대한 반응으로서 민주화과정은 종종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채 정부의 형태라든지 사회정치적인 권력의 불평등에 관한 구조적 조건들을 변화시킨다. 따라서 역사의 회전축으로서 아니면 분기점으로서 민주화과정은 끊임 없는 지적 탐구의 대상이 되어왔다고 할 수 있다.

민주화과정에 대한 일반적인 진술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사례에 대해 과학적으로 연구해야 된다는 것이 본 연구의 기본가정이다. 이 가정에 의하면 적은 사례들을 너무 역사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에서의 일반화는 가능하더라도 방법론적인 맥락에서의 일반화에는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 다시 말해서 개별 사례에 관한 사실적인 기술은 하더라도, 그 분석결과가 다른 사례연구에 적용될 수 있는 범위는 매우 좁다는 것이다. 역으로 보다 많은 사례에 관한 비교역사방법의 경험적 연구결과는 역사적인 분석을 거친 각각의 개별사례에 대해 적용될 수 있다. 예컨대 체제 불균형, 주권의 다양성, 국가와 시민사회간의 역할관계, 그리고 상대적 박탈감을 포함하는 가치지향적인 이념대립 등의 일반화된 틀에 의해서 민주화과정의 많은 사례들을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다.

2. 비교사의 방법과 전략

역사학과 사회학의 결합을 통해 이른바 사실에 대한 이론의 역할을 강조하는 과학적 탐구로서의 비교사의 방법과 전략은 인류의 사회구조와 변화에 대해 시·공을 초월해서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비교역사방법이 다루는 주제는 일반적으로 문명, 사회체제와 구조, 문화와 종교, 전쟁과 혁명, 민주주의, 사회발전 등 거시사회영역에 해당되며 그 원인과 의미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의 방법으로 탐구되어져 왔다. 이러한 거시사회체제에 대한 비교연구를 위해 이해 및 해석학의 방법, 실험 및 통제의 연구설계, 통계분석, 현장조사 및 참여관찰, 그밖에 사례연구

및 내용분석법 등 제반 사회과학방법론을 활용함으로써 연역법과 귀납법의 두 축을 중심으로 비교사에 담겨져 있는 인과구조의 논리를 추정하고 있는 것이다.

비교사연구의 흐름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커다란 역사적 사건을 중심적인 연구대상으로 하는 동시에 적은 사례의 수에 국한될 수밖에 없는 이른바 거대 사례의 비교역사탐구(big comparative-historical inquiries)를 들 수 있다. 이러한 비교사의 일반적인 흐름은 마르크스나 베버의 경우에서와 같이 권력관계나 자유를 둘러싼 인간의 행위 등 어떤 사회과정이 언제,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지는지, 또 그것이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천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인류투쟁의 역사에 대한 비교사회학의 풍부하고 야심찬 접근은 오늘날 거시 사회연구의 다양한 패러다임의 등장으로 보다 복합적인 양상을 갖게 된다. 그 가운데 밀(J. S. Mill)의 일치법과 차이법, 그리고 간접차이법은 비교사연구에 있어 하나의 방법론적 추론의 모형으로서 고전적 설계(classical design)라 지칭되며, 대부분의 비교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밀의 접근은 변수간의 상호작용의 효과가 참 원인일 때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관계가 허구적 관계(spurious relation)로서 제3의 인과구조를 밝히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베버가 주장하듯이, 변수사이의 통계적 경향성 이외에 변수간의 관계적 의미의 적합성(meaning adequacy)을 부여하는 보조적인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곧 인과성은 통계적 규칙성뿐만 아니라 의미 적합성을 지녀야 하며, 관계망의 형태와 그 형태의 효과를 밝히는 방법이 더욱 논리적으로 세련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19세기 중엽 조지 불리에 의해 주창되었던 이른바 불리안 대수학(Boolean algebra)의 논리적 추론방법이 유용한데, 레긴(1989)¹⁾은 불리안 대수학을 사회과학에 적용하는데 필요한 열 가지의 기본조건을 상정하고 있다. 그 가운데 사회현상의 질적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독립변수로서의 부가적 조건과 종속변수로서의 결과간의 지속 상응성을 뜻하는 — 논리학의 ‘또는’ 개념과 유사한 — 불리안의 덧셈 및 합집합의 법칙; 인과구조의 구체적인 결합형태로서 본래 의미에서의 독립 변수군의 총합을 의미하는 — 논리학의 ‘그리고’ 개념과 유사한 — 불리안의 곱셈 및 교집합의 법칙; 논리적 추론에 따른 각 변수군의 주요 의미와 맥락에 관한 이

1) Ragin, Charles (1989), *The Comparative Method: Moving Beyond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Strategies*,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해: 긍정적 사례 또는 정의 경우에 대한 분석결과를 부정적 사례 또는 부의 경우에 대한 분석결과와 대비시킴으로써 부의 경우를 최소화하는 모건(Morgan)의 법칙 등이 중요하다. 이와 같이 간략히 살펴 본 불리안 대수학의 질적 분석에의 특성은 다변량(multivariate) 인과구조의 유형을 구명하는데 이상적인 도구로서 간주될 수 있다. 우선 사례 중심적인(case-oriented) 연구에서와 같이 연역적 추론을 강하게 적용시키며, 일련의 분석과정을 각 단계별로 세분화하고 다시 이를 체계화함으로써 복잡한 인과구조를 가능한 한 단순화시키려고 노력한다.²⁾ 다시 말해서 비록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포함함으로써 인과관계의 복잡성에 대한 분석의 편차를 가지고 시작하지만, 실험 및 통제의 방법으로 각 변수들을 차별화하고 그 복잡성의 편차를 줄여 나감에 따라 불리안 대수학의 논리추정을 사회현상에 대해 과학적으로 적용한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인과구조의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에 대한 고려에서와 같이 비교사적 연구방법의 일반화를 지향한다는 점도 사회과학의 한계와 가능성에 대한 쟁점을 제시한다고 하겠다.³⁾

비교사의 분석전략과 관련하여, 톨리는 거대사례연구에 대한 대안으로서 크게 네 가지를 지적하고 있다:⁴⁾ (1) 체계이론적 접근 — 상호의존적인 혹은 배제적인 사회구조들로 구성된, 아울러 자생력을 갖고 있는 모든 집합체(collectivities)의 연계

2) 불리안 대수학의 접근방법은 일련의 사례들에 대해 하나의 결과가 일어나느냐라는 그 원인과 결과의 발생 유무를 역사적으로 서술하는 질적자료 — 종종 이분법적인 범주별 자료 — 의 행렬식을 통해 분석한다고 요약할 수 있다. 만약 그 행렬식의 기준인 일관성(consistency)이 유지된다면 불리안 대수학의 접근방법은, 예컨대 합집합과 교집합의 원칙에서와 같이, 가장 논리적이고 압축적인 논증으로서 주어진 사회현상에 관한 인과구조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밝힐 수 있다.

3) 이러한 분석전략은 추후 검증가능성을 남겨 놓음으로써 이론검증(theory testing)에 대한 이론구축(theory building)의 상대적 우위를 건지할 수 있으며 적은 수의 사례연구가 갖는 맥락의 흐름을 포함한다. 불리안의 결합방식은 이론구축 작업의 발견의 기능(discovery function)과 경험적 증명과 반례에 의한 검증 및 정당화(justification)의 기능을 함께 수행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와 관련된 개념적 구분에 대해서는 Popper, Karl(1959), *The Logic of Scientific Discovery*, New York: Harper & Row; *Conjectures and Refutations*, London: Hutchinson(1963)을 참조할 수 있다. 정당화 기능과 관련해서는 통계적 귀납법이 과학적 탐구의 최종 단계로서 유의미하다는 Lieberman, Stanley(1991), "Small Ns and Big Conclusions," *Social Forces* 70: 307-20을 참조할 수 있다.

4) Tilly, Charles(et al.)(1995), "Globalization Threatens Labor's Rights," plus responses from I. Wallerstein(et al.), followed by Tilly reply, *International Labor and Working Class History* 47: 1-55와 Tilly의 글(1995), "To Explain Political Process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0: 1594-1610을 참조할 것.

와 변이; (2) 미시적 접근방법(methodological individualism) — 사회적 사실을 개별 행위자의 동기와 내적 요소로 환원; (3) 현상학적 접근(phenomenological individualism) — 사회적 사실을 개인이나 집단 등 행위자의 의식구조로 환원; (4) 사회관계론적 접근(related realism) — 사회분석의 출발점으로서 사회적 유대감 또는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방법 등이다. 또한 아래로부터의 혁명 등 민주주의의 영향으로 인해 역사학과 사회학의 만남을 제시하였던 비교사의 접근양식은 광범위한 사례별 비교연구보다는 역사자료들에 대한 개별연구로 돌아가고 있으며, 아울러 거시사회의 비교연구의 전략도 세계화 추세와 함께 그 분석단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⁵⁾

3. 방법론적 전통과 쟁점

세계 제2차 대전이래 사회과학의 두 가지 방법론적 전통 —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 — 은 어떤 사회경제적 조건들이 민주주의의 생성과 유지·발전에 기여하는가에 대한 지적 탐구를 계속해 왔다. 두 가지 전통은 각기 상이한 이론적 토대 위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더욱이 상호 모순되는 연구결과에 도달하고 있다.

국가간 양적 분석의 대표적인 흐름은 립셋의 『민주주의에의 기본조건: 경제발전과 정치적 정통성』(1959)⁶⁾에서 파악될 수 있는데, 이 접근방법은 먼저 많은 수의 국가군에 대해 경제성장과 민주주의에 관한 구체적 범위의 집합적인 자료 수집을 하고 이것을 표준화된 수치로 환산함으로써 보다 세련된 수준에서의 통계분석을 수행한다. 이론적 해석은 근대화이론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요컨대 정치·경제·사회의 제 분야는 체계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하나의 가치함의에 의해서 통합되고 이는 다시 사회구조의 전문화와 분화과정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동향은 이러한 광범위한 이론적 가정들보다는 좀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가설들에 초점을 두고 있다. 비록 양적 분석의 전통이 경제발전과 민주주의에

5) Abbott, Andrew(1994), "History and Sociology: The Lost Synthesis," in E. Monkmen(ed.), *Engaging the Past: The Uses of History across the Social Sciences*, NC: Duke University Press.

6) Lipset, S. Martin(1959), "Some Social Requisites of Democracy: Economic Development and Political Legitimac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53: 69-105.

관한 다양한 측정방법을 개발하고 또 광범위한 지역에 걸친 분석을 수행하지만, 일관된 한 가지 주요한 결론은 경제성장의 단계와 민주주의는 정의 상관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해석은 주로 통신수단과 교육, 그리고 중간계급의 성장을 강조함으로써 이루어지는데, 바로 이와 같은 요소들이 전체 사회구성원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인내력 등을 이끌게 되며 민주적 운영체계의 행위론적 밑거름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양적 분석의 결과는 일련의 질적 분석의 연구들에 의해서 강한 도전을 받고 있는데 그 대안적인 접근방법의 대표적인 경우가 무어의 『독재와 민주주의의 사회적 기원』(1966)⁷⁾이다. 베버(1906)⁸⁾와 오도넬(1973)⁹⁾에 이르기까지 자본주의 발전과 민주주의의 상호관계에 관한 역사연구의 성과에서와 같이, 무어의 분석도 자본주의적 경제성장이 지구상에 확산됨에 따라 민주주의에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결론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역사방법의 전통은 한 사회의 갈등에 초점을 두는 정치경제학적 시각에 의해 구체적인 사례들을 심도 있게 분석한다. 예컨대 사회의 통합적인 측면보다 정치적 또는 경제적 권력관계를 분석의 축으로 함으로써 기본적으로 사회행위자들의 갈등적인 이해관계에 의해 사회변화가 일어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시각은 아울러 각 사례별 역사적 특수성을 강조하는데 곧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에의 길은 그 자체로서 다양한 인과구조를 지닌다는 것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자본주의의 영향을 분석함에 있어, 이러한 상이한 접근방법과 결과에 대한 의구심이 바로 본 연구의 출발점이 되고 있으며 따라서 그 연구성과는 실제적 분석을 통해 이 막다른 골목에서의 탈출이 얼마나 성공적일 수 있나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민주화과정에 관한 이러한 방법론상의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비교사적 접근은 이른바 시간과 공간의 구조화를 통한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하게 된다. 비교사는 이론의 방향에 있어 역사로부터 장기적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회구조와 변동에 관한 설명적 일반화를 시도하는 것으로 시간과 공간을

7) Moore Jr., Barrington(1967), *Social Origins of Dictatorship and Democracy: Lord and Peasant in the Making of the Modern World*, Boston: Beacon Press.

8) Weber, Max(1906), "Zur Lage der burgerlichen Demokratie in Russland," *Archiv fur Sozialwissenschaft und Sozialpolitik*, N.S. 22.

9) O'Donnell, Guillermo(1973), *Modernization and Bureaucratic Authoritarianism*,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측으로 사회구조의 생성·성장·소멸을 분석하여 위의 두 가지 접근방법의 방법론적 틈새를 메우고 효과적으로 연결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민제이드(1992)¹⁰⁾는 사회적 행위자들이 사건별 시간적 흐름 속에서 어떻게 구조화되는지를 시간의 네 가지 차원별로 나누어서 검토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시간의 속도(pace) 개념은 주어진 시간범위 안에 발생한 사건의 수를 지칭하며 이에 반해 지속성(duration)은 주어진 사건 및 과정에 소요된 시간을 의미한다. 다른 한편으로 주기(cycles)는 시간의 연속과정을 규정하는 반복적 사건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주로 변동의 순환형태에 초점을 두는 반면, 시간의 궤도(trajjectory)는 반복적이라기 보다는 누적적인 일련의 사건을 의미하는데 변화의 방향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시간의 주기 개념은 각기 증감의 단계로 구성되는 동일한 사건의 반복적 발생 시점 사이의 간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정치적 선거주기와 경제주기가 상이한 시간성을 지니듯이, 상이한 시간단위를 포함하는 일련의 규칙성을 제시한다. 이 규칙성은 논쟁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혁신적 상승곡선의 주기, 변증법적 주기, 동일주기의 반복 등으로 구분되어 역사연구에 활용되고 있다. 루쉬마이어 등의 논리는 이와는 대칭적인 개념으로서 시간의 궤도에 기반해 사건의 연속과정에 초점을 두고 특정한 역사적 과정을 특징 지우는 보다 전형적인 연속과정이 존재하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각 연속과정의 유형을 위치 지우는 데 관심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비교역사방법에 관한 비판적 고찰로서 역사적 시간 및 공간의 의미를 이론적인 범주로 보다 정교하게 발전시킨 스웰(1996)¹¹⁾의 경우는 역사적 과정에 대한 비교사의 접근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스웰에 의하면, 왈러스타인과 킬리가 방법론상 부분에서 전체로 환원시키는 천문학의 우주론적 체계와 시간적 연속성이라는 기본전제를 세계체제라는 공간적 구조 안으로 유추하여 방법론상 사회성층의 각 부분이 세계체제라는 전체에 의해서 설명된다고 봄으로써 역사사회학의 목적론적 일시성(teleological temporality)을 전형화한 데 비해 스카치폴은 시간의 일시성을 상호교환이 가능한 분석단위로 변형함으로써 실험적인 성격을 강하게 나

10) Aminzade, Ronald(1992), "Historical Sociology and Time," *Sociological Methods and Research* 20: 456-80.

11) Sewell, W. H. Jr.(1996), "Three Temporalities: Toward an Eventful Sociology," in T.J. McDonald (ed.), *The Historic Turn in the Human Sciences*,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타내는 실험적 일시성(experimental temporality)을 강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그 대안으로서 사회구조의 변동원이 되는 역사적 사건의 영향력에 초점을 두는 사건별 일시성(eventful temporality)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분석들은 공간의 사회적 의미를 변동의 발생시기마다 사회이론으로 수렴 또는 파악되지 못한 채 주로 인접과학인 공간지리학의 틀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이해되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자연과 사회환경의 구분에서 전자를 후자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적 맥락으로 설정하고, 후자 곧 사회환경은 각기 사회구조를 내재화하고 있는 하부공간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하부공간은 다시 규범적인 합의나 구조적인 갈등과정 및 그 재구성을 의미한다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사회의 공간적 구분은 흔히 국가단위와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 도시와 농촌의 이분법적 공간분할에서와 같이 각 사회는 공간을 가로질러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다양한 사회구조의 형태를 지닌 하나의 공간의 체계와 그 변이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공간에 대한 사회학적 탐구는 종종 그 사회이론 속에 필연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역사의식에 대한 이른바 '역사학적 상상력'과 상충되기도 하는데, 곧 구체적인 공간적 사회관계는 다시 다양한 사회적 시간대 안에 구조화됨으로써 공간과 시간의 역설적인 상호관계를 전제하게 된다.

루쉬마이어 등은 특히 자본주의 발전이 어떻게 민주주의의 급속한 성장을 초래했는가에 대해 관심을 가졌는데, 그 결과 봉건적 연결고리의 탈피와 새로운 계급구조의 출현으로 인한 시장기능 및 계급투쟁의 지구상에서의 확장을 논하고 있다. 곧 이들의 분석은 한편으로 어떻게 자본주의적 축적과정이 시간에 의한 공간의 제한 위에서 있는가에 초점을 두면서, 다른 한편으로 시간과 공간을 가로질러서 어떻게 계급구조와 사회체계가 변동하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시간 및 공간의 구조화과정과 민주주의 및 자본주의에 기초한 사회적 관계사이의 연결고리를 고려할 때 상이한 사회집단과 민족이나 성에 따른 노동력의 공간배치문제 또는 산업화에 대한 태도나 정치적 저항의 공간적 변이상태 등 다양한 이론적 관심들을 생각할 수 있으며, 이를 하나의 공통적 관심사로서 정립하기 위해 시간 및 공간에 대한 보다 통합된 분석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민주화과정과 관련하여 시간과 공간에 대한 물리적 의미와 사회적 의미를 어떻게 또는 어떤 방식으로 자연과 사회 및 문화현상에 대해 구조화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천착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시간과 공간에 대한 고정화 된 개념들로부터 탈피함으로써 양적 분석과 질

적 분석의 접합점에 대한 이론적 재구성을 필요로 한다.

4. 민주화과정에 대한 비교분석들

민주주의의 사회경제적 조건들에 관한 어떤 설명도 기본적으로는 국가간 양적 분석에 의한 두 변수간의 상호관계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 관계는 종종 근대화이론에서와 같이 확고하게 이론적으로 수립되지 않는다. 더욱이 어떤 양적 분석도 그 인과과정에 대한 충분한 추론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다시 말해서 유사한 결과들이 수많은 요소와 다른 인과과정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¹²⁾ 국가간 횡적 비교연구의 대표적인 예로서 한난과 캐롤(1981)¹³⁾의 경우를 들 수 있는데, 이들은 공식적인 정치구조의 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상관관계를 규명하고자 사건별 역사방법(event-history method)을 사용하여 국가간 양적 분석의 결과를 부분적으로 수정하고 있다.¹⁴⁾ 1950년에서 1975년까지의 90여 개 국가들을 연구대상으로 한 결과 경제 수준과 인종의 다양성이 정치체제의 변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인과고리의 복잡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 인과고리를 파악하기 위해 비교역사방법에 입각한 이른바 '분석적 추론(analytic induction)'이 유효하다. 이 분석전략은 사례연구법(case study)의 일종으로 먼저 기존의 연구방법을 고려하는 이론적 틀을 세우고, 이 틀 위에서 일련의 개별적인 역사들을 분석함으로써 역사과정에 관한 정보와 사실을 수집하며, 분석되어진 각각의 요소들의 특정한 역사적 맥락을 정당화할 수 있다. 요컨대 분석적 추론은 방법론상의 모든 이점을 하나의 틀에 융합시킴으로써 분석전략의 구성요소를 가능

12) 비교사회학 분야의 양적 또는 질적분석의 특징과 차이점에 관해서는 Marsh, Robert(1967), *Comparative Sociology: A Codification of Cross-Sectional Analysis*, New York: Harcourt, Brace and World 및 Ragin, Charles의 앞의 책(1989)을 참조할 수 있다.

13) Hannan, Michael and Carroll Glenn(1981), "Dynamics of Formal Political Structure: An Event-History Analysi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6: 19-35.

14) 국가간 질적 비교연구에 관한 외국문헌의 예로서는 Skocpol, Theda(1979), *States and Social Revolu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를 들 수 있으며, 국내문헌으로서는 역사적 투사(historical projection) 방법을 적용한 강정구(1989), 《좌절된 사회혁명: 미점령하의 남한, 필리핀, 북한 비교연구》, 열음사를 참조할 수 있다.

한 한 다 포함하고자 한다. 루쉬마이어 등(1992: 16-39)에 의하면 구체적인 방법론적 전략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서 규정될 수 있다.

1. 연구대상에 대한 초기 개념규정
2. 선택된 사례에 대한 가설의 설명
3. 사례의 긍정적·부정적 측면에 대한 고찰: 가설과의 연결고리에 대한 검토
4. 가설과의 연결고리가 부정적일 경우(일치하지 않을 경우), 초기 분석틀을 재구성
5. 실질적 또는 이론적 관계가 충분히 파악될 때까지 위의 절차를 지속적으로 수행

각 사례들은 초기 연구문헌의 구체적인 가설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이론적 구성을 수정하며, 그 결과 하나의 이론체계에 의해 해석되어진 사례들에 대한 범주를 설정하고 연구되어진 사례들과 일치하는 수정된 이론을 구축하게 된다. 이러한 전략에 기초해서 연구되어진 사례들을 조망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을 규정하며, 민주주의가 출현하게 되는 다양한 조건들을 규명하고, 마지막으로 경제성장이 어떻게 이 조건들에게 영향을 미쳤는가에 관한 통찰력을 발전시킨다.

사례분석법은 일반적으로 너무 적은 사례의 수와 너무 많은 변수로 연구작업상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비교역사방법의 가능성을 확장함으로써 그 어려움을 줄일 수 있으며 또 많은 수의 사례들을 포함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 예컨대 선진자본주의 국가군, 남미 국가군, 그리고 중미 및 서인도 제도 국가군 등의 집락 분석(cluster analysis)을 들 수 있다. 이들 국가 군들은 오늘날 지구상에서 가장 민주화된 지역이자 역사적으로 민주화과정이 실험중인 지역이며 또한 일반적인 양적 분석의 경우보다 많은 수의 사례들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비교역사방법의 이론적 틀은 민주주의는 권력 및 그것의 분배문제라는 명제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세 가지 요소 가운데 계급과 계급연합간의 권력균형이 가장 중요한 변수로 간주된다. 즉 계급권력은 다른 두 가지 권력군에 의해 형성되며 그 하나는 국가기구의 구조·영향력·자율성과 시민사회와의 상관관계이며, 다른 하나는 초국가권력의 계급권력의 균형 및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에 대한 영향력을 들 수 있다. 체제보다는 사회적 행위자(social actors)에 보다 많은 관심을 투영하는 이들의 시각은 사회계급의 개념들이 주어진 사회의 이해 및 권력관계의 구조를 이해하는데 핵심요소라고 간주하며, 계급이해의 조직은 집합적 행위양식

(collective actions) 뿐만 아니라 실제적 이해관계로서 사회적·역사적으로 구축되는 복합적인 과정이라고 보고 그 주관적 의미를 계급구조의 이면(underlying structure)에 연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전제에 의해 적어도 민주주의의 가능성에 관한 한 세 가지 권력군에 분석의 초점을 둘 수 있는데, 그것은 (1) 시민사회의 가장 중요한 역학관계로서의 계급권력(class power)의 균형; (2) 국가권력(state power)의 성격과 국가와 시민사회와의 관계 또는 국가와 시민사회의 힘의 균형점; 그리고 (3) 초국가 권력구조(international power) 또는 국제정치 및 경제체제이다. 이러한 분석틀에 의해 각 사례별로 나타난 결과들을 종합하면, 자본주의 발전과 민주주의는 가장 일반적인 수준에서 정의 상관관계에 있으며 그 인과구조는 전자가 지주 등 상층의 권력기반을 약화시키고 피지배층의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계급권력의 균형점을 이동시킨다는(power-shift) 것이다. 그리고 역사상 다른 피지배층과 달리 노동자계급 및 중간계급은 도시화, 산업화, 그리고 통신 및 교통수단의 발달로 인해 자체적으로 조직력을 강화함으로써 민주주의 확산에 공헌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시각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연결고리에 있어 단순한 중간계급의 확대나 근대화 이론에서 주장하는 분화된 정치적 다원주의에 의한 설명방식은 배제한다. 아울러 정치이론의 좌·우파에서 논의되었던 민주주의는 자본가계급의 산물이라는 데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비교역사방법에 의해 밝혀진 중요한 사실 가운데 하나는 경제적으로 지배적인 계급은 — 특히 남미의 경우 — 그들의 정치적 이해가 효과적으로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만 민주화과정에 동참한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사례연구와 논리적 설명에는 다음과 같은 이론적 가정이 들어 있다. 먼저, 자본주의 발전과 민주주의의 상호관계는 단선적이거나 자동적이지는 않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계급문제가 전부일 수는 없으며 다른 두 가지 축 — 국가와 시민사회, 국제정치체제 — 에 의한 복합적인 상호작용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로, 각 수준에서의 권력관계는 역사적인 구성물이며 따라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의미체계로 보아야 한다. 예컨대 노동자계급의 이해관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는 없으며 아울러 민주화과정과 관련하여 자본가계급의 역할이동에 대한 고찰을 등한시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같은 계급 내에서의 분화현상과 함께 다른 계급간의 연대에 관한 분석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5. 비교역사방법의 적용

유럽의 경우, 1870년의 스위스를 시발로 1920년까지 영국, 네덜란드, 벨기에 등 대부분의 국가들이 의회제도, 정당체제, 그리고 선거권을 갖는 공식적인 의미에서의 민주주의 체제를 갖게 된다. 이와 같은 민주화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계층은 노동자계급과 그 연대세력인 중간층과 농민층이었으며 이들의 조직적인 사회운동으로 인해 시민사회의 참정권 확대를 비롯, 민주주의의 정착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자본가계급은 13개 유럽국가군에서 겨우 세 경우만 민주화과정에 공헌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재산권 등 기득권에 안주하고자 하는 상층 자본가계급이 그들의 이해관계를 위협하는 노동자계급 등 피지배 계층의 정치적 참여를 배제하고자 하는 구조적 조건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자본가계급은 지주나 국가관료 등의 지배세력과 연대함으로써 민주화과정에 역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남미의 경우, 자본가계급의 역할은 유럽의 경우와 유사하며 단지 민주화의 전위적 세력은 노동자계급이 아닌 중간층이었기 때문에 다분히 제한된 민주주의로 출발하였으며 두 계급간의 연대정도에 따라 민주화과정의 변이를 갖게 된다. 페론의 아르헨티나의 경우(1946-1955), 노동자계급이 반드시 민주화 옹호세력은 아니라는 사실을 극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만약 정치지도자들이 그들에게 물질적 풍요를 충족시켜 준다면 노동자계급은 권위주의 정치체제를 지지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는 남미의 경우 여러 방식으로 민주화과정을 저해하는 요인이었는데, 미국 등 외부세력의 도움으로 강력한 국가의 개입능력을 가짐으로써 남미의 국가들은 국내의 지배세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자율권을 행사, 이른바 관료적 권위주의(bureaucratic authoritarianism)를 정착하게 되었다. 종속이론에서의 설명과 같이, 기술·자본·시장 등의 세계경제에의 의존성은 국가독점력을 강화함으로써 경제성장 뿐만 아니라 민주화과정을 역행시킨다고 볼 수 있다.

중미와 서인도 제도 국가군의 경우, 남미의 경우와 같이 민주화를 역행시키는 일련의 사회경제적 특징들을 공유하고 있다. 시민사회의 위약성과 군사 및 정치 체제에 대한 미국의 지원은 이 지역에서의 민주화에 제동을 걸고 있으며 오로지 언어권의 서인도 제도의 국가군만이 식민지 전통으로부터 계급연대를 통해 민주화의 길

을 견고 있다. 이와 같이 비슷한 수준의 경제성장과 유사한 경제구조 및 대외시장 환경을 갖는 이 지역에서의 민주화과정에 관한 비교연구는 국가와 계급구조, 그리고 식민지 전통에의 공헌도 등을 주요 공통분모(parameters)로 추출해내고 있다. 마찬가지로 군사정권의 유무는 이러한 내적 요인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으며 제3의 권력축인 국제정치체제를 고려해야 한다. 중미에서의 미국의 역할과 서인도 제도에서의 영국의 역할은 좋은 비교가 된다. 전자가 지정학적 이해관계에 의한 군사적 지원 하에 억압적인 국가체제를 유지시켰다면, 후자는 쇠퇴해 가는 제국의 병폐와 공백을 사회민주세력들에게 넘겨주게 된다.

이 지역에 대한 분석결과는 유럽의 민주화에 대한 재해석을 요구하는데 이러한 작업과정이 바로 분석적 추론의 핵심단계라고 할 수 있다. 유럽의 경우, 권위주의 정치체제의 출현은 독일, 이태리, 헝가리, 그리고 스페인의 경우에서와 같이 주로 강력한 지주계급의 역할 때문이라 할 수 있지만, 서인도 제도의 경우는 지주의 역할이 국가권력에 의해 견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서구의 경우, 강력한 국가기제는 국가간의 전쟁을 통해서 형성되었으며 지주계급은 이 기간 동안 군사정권과의 연대를 통해 그들의 이해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됨으로써 권위주의 체제를 지지하는 세력으로 남게 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계급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세 가지 권력 군과 이를 둘러싼 각 변수간의 상관관계 및 이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효과의 가능성을 검증하는 세 가지 지역군에서의 비교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1. 민주주의 가능성에 관한 국가기구(state strength)의 부정적 효과
2. 정치형태의 안정성과 사회적 안전의 결합효과
3. 경제에 대한 중앙통제와 민주주의간의 부의 상관관계
4. 민주주의에 대한 인종·언어별 다양성의 부정적 효과
5. 문화적 전통 및 전파의 민주주의에 대한 역할가능성
6. 민주주의에 대한 문자해독율의 정의 상관관계
7. 경제 및 지정학적 의존성에 의한 효과의 가능성
8. 민주주의와 경제적 평등성의 장기적 상호지원관계

6. 이론적 함의

비교역사방법의 실제적인 적용으로서 루쉬마이어 등의 결론은 정치적 민주주의에 관한 국가간 양적 분석의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¹⁵⁾ 하지만 그 연결고리에 숨겨진 사실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자본주의 발전은 계급구조를 변화시키며 이 과정에서 노동자 및 중간 계급이 조직적 역량을 확대하여 지배층은 그들을 정치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 동시에 자본주의 발전은 민주주의의 강력한 장애세력인 상층 지주계급을 약화시킨다. 그러나 이러한 계급구조의 발전 또는 전환은 스페인어권의 중미와 영어권의 서인도 제도 국가군의 상이한 정치적 발전의 길이 증명하듯이, 민주화의 발전과정에 있어서의 국가간의 모든 차이점을 설명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구조의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계급관계는 한 사회의 권력 및 이해 관계를 이해하는 데에 필수적인 요소다. 이 계급 분석틀 안에서 무어의 시각인 민주적 개혁의 주요 행위자로서의 자본가계급은 상대적으로 덜 중시되고 있다. 루쉬마이어 등의 논지에 의하면, 오늘날 자본가계급과는 달리 19세기 유럽과 20세기 남미의 경우 자본가계급은 그들의 물질적 기반을 위협하는 다른 계급의 정치적 참여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가졌으며 따라서 민주화과정에 역행하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각 계급간의 상대적 역할을 분석한 후에 저자들은 자본가계급 때문이 아니라 자본가계급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 발전은 민주화과정을 진행시키는 요인이 되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민주주의는 자본주의 발전에 내재하는 모순의 산물이며 그 이유로는 자본주의 체제가 피지배층, 특히 노동자 계급의 조직력을 강화시키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의 분석은 개발도상국의 앞으로의 민주화과정에 있어서 국제정치체제의 변화에 따른 외교전략과 국내정치체제의 변화 등을 언급하고 있는데, 곧 구 소

15) 자본주의 발전과 민주주의 향방에 관한 대부분의 국가간 횡적 분석(cross-national analysis)들은 두 변수 사이의 정(positive)의 상관관계를 연구결과로 제시하고 있다. Rueschemeyer(et al.) 책의 pp. 13-20을 참조할 것.

런식 발전전략의 수정과 함께 개발도상국, 특히 남미에서의 권위주의 체제의 붕괴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민주화과정에 역행하는 요소들, 예컨대 물질적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노사관계라든지 경제정체애의 가능성 등에 대해 조심스럽게 경고하고 있다. 비록 경제성장은 민주화과정에 공헌하지만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성장 자체보다는 산업화나 도시화에 따른 계급 및 사회구조의 변화가 민주주의 성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예컨대 개발도상국에서의 농촌에 대한 계급분석에 따르면 중요한 지주계급이 붕괴되었을 때 그리고 다수의 중간층이 존재할 때 비로소 민주화애로의 전망이 밝게 된다.

이와 같은 연구성과애도 불구하고, 이들 분석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이 지적될 수 있다.¹⁶⁾ 첫째로, 이론적 주장과 구체적인 분석에 있어 자본주의 발전과 민주주의의 상호관계는 인과 구조상 역의 관계, 곧 후자가 전자를 규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다. 이렇게 정치적인 측면을 부차적인 종속변수로만 볼 수 없는 근거는 경험적으로도 나타나고 있는데, 예컨대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들은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갖고 있지만 반드시 모든 자본주의 국가들이 민주적 정치체제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둘째로, 이들의 계급분석은 이분법 — 민주주의 옹호세력인 피지배층(노동자 및 중간층)과 반대세력인 지배층(지주 및 자본가 계급) — 에 기초하고 있는데, 이러한 단순 계급구조는 각 계급내의 이질성과 다양성을 고려할 때 전적으로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모든 피지배층이 민주주의의 옹호자는 아니며 또 모든 지배층이 민주화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전통적 계급범주를 벗어난 보다 세밀한 계급 분석틀이 필요하다 하겠다. 마지막으로, 정치체제의 변화 곧 민주화과정을 설명하는 데 있어 이들의 분석은 어떻게 자본주의 경제가 발전해 왔는가에 대한 고려를 배제한 채 단지 구조적으로 주어진 상황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로 인해 유럽국가군의 민주주의 성립에 공헌한 자본가계급의 역할을 등한시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결국 무어의 주장을 논박하고자 하였던 루쉬미어 등의 분석결과는 아직 미완성의 단계에 있으며 자본주의 발전과 민주주의애 관한 보다 세밀한 통찰력

16) 두 변수간의 인과론적 분석에 대해서는 Muller, Edward(1995), *Economic Determinants of Democrac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0: 805-21; Jackman, Robert(1995), "Civil Culture, Inequality, and Democratization Revisited," Davis, CA: University of California, Unpublished manuscript; Hall John(ed.) (1997), *Reworking Class: Cultures and Institutions of Economic Stratification and Agency*,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를 참고할 수 있다.

과 함께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그 방법론상의 장점을 살려 보다 진전된 성과가 나올 것으로 희망한다.

7. 민주화연구에 관한 방법론적 전망

민주주의와 같은 하나의 사회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방법론적 근거는 어떤 변수가 다른 변수의 결정요인이 된다는 즉 그 인과구조를 파악하는 데 있다. 이는 관찰된 구체적 자료에 의해 인과구조를 검증함으로써 이론적 타당성을 논리적으로 추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같은 가설검증의 전통은 《자본주의 발전과 민주주의》에서 살펴보았듯이 크게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의 두 가지 흐름으로 양분될 수 있으며 비교연구에 관한 한 종종 대조적인 연구결과들로 특징 되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 접근은 본질적으로 상호보완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관찰가능한 사례의 수가 적어질수록 통계적 처리에 입각한 양적 분석의 가능성은 좁아지며 바로 이 한계점을 극복하고 비교연구를 수정 또는 보완하기 위한 질적 분석의 공간이 필요하게 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 고찰한 루쉬마이어 등의 접근방법은 장기적으로 사회발전을 진행시키거나 또는 저해하는 요소들에 관한 인과적 설명체계를 완성하고자 시도하였던 것이다. 특히 방법론적으로는 국가간 양적 분석의 결과를 통합하고 있으며 실제 분석 자체는 체계적인 비교역사방법에 기초하고 있다. 레긴(1989)이 잘 지적하듯이, 전자의 분석방법은 보다 광범위하고 양적인 아울러 분석적이고 법칙적인 패러미터의 추출과 함께 통계처리에 기초해서 일반화의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하며, 반대로 후자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좁은 범위의 질적이고 역사적인 서술과 함께 개별 사례의 구체적인 흐름에 입각한 비통계적인 설명방식으로 그 특수성과 인과구조를 밝히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이 분해되고 다시 통합되는 사회과학의 방법론적 전통을 확장하기 위한 분석전략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자 한다: 방법론적 통합기준으로서 (1) 원인이 될 수 있는 모든 가능성과 함께 각 사례에 대한 전체적 시각; (2) 원인의 가능성에 대한 수렴화과정과 원인요소들의 조합형태; (3) 각 사례간에 포함되어 있는 이질적 원인요소들의 추출; (4) 일탈사례와 일반화에 대한 통합적 관심; (5) 부분과 전체의 관계를 설명하는 보편성(*generality*)과 특수성(*particularity*)의 방법의 조합;

(6) 적은 사례의 수에서 적정한 수의 사례연구로의 체계화과정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전략은 방법론적으로 강한 장점을 지니며 그 특성상 방법론의 확장으로 수정·보완된 또 다른 분석전략의 가능성을 갖고 양극단의 단점을 보완함으로써 분석상의 균형을 이룰 수 있다. 예를 들면 양적 분석을 통해 사례연구의 본질적인 한계인 자유도(degree of freedom)의 문제를 줄일 수 있다. 아울러 이 분석전략은 세밀한 개념규정이나 작업가설로부터 이론을 정립하거나, 논리적으로 연결된 이론체계와 사실의 유관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해 귀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분석단위와 관련하여, 세계화의 추세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구체적인 사회행위의 주체로서 국가 및 시민사회의 분석상의 의미는 중요하며 실제로 세계화와 정보화의 증대가 바로 국가나 사회체계의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고 단정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일군의 국가집단들은 그들간의 상호의존성을 높임으로써 세계화과정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체제와 초국가체제가 통합됨(embedded)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국가체제의 하부단계인 각 사회조직체의 정체감(identity)과 운동의 흐름 역시 국가와 시민사회의 구조적 특징을 기본 축으로 하기 때문에 여전히 국가사회가 비교연구의 주요 분석단위로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비록 사회현상에 대한 불변의 법칙적 설명은 아닐지라도 국가사회를 하나의 자료단위로 하는 접근방법은 사회과정에 대한 인과구조를 역사적 수준에서 맥락화함으로써 과잉일반화(over-generalization)의 오류를 제거할 수 있다. 아울러 이를 다시 체계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비교연구의 분석전략은 구체적으로 1차 자료와 2차 자료를 서로 대비함으로써 사회구조와 과정에 대한 수평적인 역사진술의 가능성을 줄임과 동시에 논점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거시 사회적 현상은 적은 사례를 연구대상으로 장기간의 변동을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역사자료나 이에 기초한 2차 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방법론상 접근이 용이하다. 다시 말해서 거시사회체계에 대한 연구는 개별적 역사연구들이 갖는 깊이 있는 서술적 분석방법인 '두껍게 묘사하기(thick description method)'에 대해 각 변수간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가설을 검토하고 각 사례들에 작용하는 상황적 맥락을 충분히 고려함으로써 일반적인 인과관계의 유형별 구성을 통해 설명적 가설을 검증해야 한다. 이러한 방법론적 진전은 거시사회연구에 따르는 분석상의 어려움들, 예컨대 제한된 사례의 수, 인과적 설명에의 시계분석의 중요성, 그리고 유사한 결과를 가져오는 상이한 인과구조의 가능성 등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론상의 이점이 있다. 비교사, 곧 역사학과 사회학의 만남은 두 탐구영역간의 방법론적 긴장을 해소하고 효과적으로 결합함으로써 시간과 공간의 주관적 경험을 객관화할 수 있는 가능성, 즉 민주화과정 등과 같은 역사적인 사건과 시간의 흐름(historical)에 관한 왜곡되지 않은 자료들에 대해 이론적 설명과 일반화(sociological) — 질적 분석과 양적 분석의 결합 — 를 통해서 보다 진전된 지적 탐험의 길을 열어 놓고 있는 것이다.

8. 결론

비교역사연구의 전략적 보완점은 우선 양적 분석의 장점을 사례분석의 이점과 결합시키는 데 있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많은 사례를 포함함으로써 일반화의 가능성을 높이며, 다른 한편으로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다양한 인과론적 틀을 제시하고 민주화과정 등 역사적 사건들에 대한 과정분석을 가능케 한다. 일반적으로 이론적 설명에 대한 정당화의 최종단계로서 비교역사방법은 체계적인 논리와 비교의 방법을 강조하는데, 더욱이 경험적 자료에 드러나지 않는 유형의 존재와 그 논리적 오류(falsification)의 가능성에 의해 통계적 귀납법의 특징을 동시에 수반하고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민주화과정에 대한 방법론적 모색 역시 이론의 신뢰도를 조절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최소한 있다는 것이다. 이 점이 바로 비교역사방법이 질적 분석으로서 필요로 하는 방법론적 특성으로 작업가설의 규명을 위한 과학적인 절차와 전제조건들에 관한 사항이자, 동시에 이를 통해 비교분석전략이 귀납적 설명과정에 관한 탐구로서 또 이론구축을 위한 가장 체계적인 처방으로서 이론과 사실의 상호작용을 연결한다는 것이다. 비록 이론구축의 상대적 우위점이 강조된다 하더라도 다른 한편으로 이론의 발견의 범주와 분석 및 정당화의 범주를 통합함으로써 또는 양적 분석의 통계적 귀납법의 논리를 포함함으로써 모든 결정론적인 시각에 대한 리버슨(1991)의 비판을 넘어설 수가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민주화에 관한 기존 연구의 방향을 보다 진전시키고자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기존연구에서 다루지 못했던 사회구조의 다른 측면들, 이를테면 문화·종교·인종·성 및 이념 체계별의 독자적인 연구영역과의 결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가장 먼저(1848) 민주주의 체제를 갖추었던

스위스의 경우, 여성에 관한 참정권은 선진국 중 가장 늦게(1971) 성취했다는 사실에 주목할 수 있다. 이 작업은 계급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사회구성원들이 민주화에 역행하는 '차별'의 범주 안에서 위치되어지는가를 파악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들을 보다 확장함으로써 민주주의 연구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

두 번째는 민주주의 역사를 그 기원에서부터 '진보와 후퇴의 물결'이라는 하나의 큰 역사적 흐름 — 문헌적으로는 약 150년의 기간으로 설정된다 — 속에서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민주화과정의 큰 줄기는 민주주의 성립기로서 서구의 1870-1914, 동구의 1918-1920 및 이 지역에서의 권위주의에로의 역행시기인 1921-1944, 민주화의 세계적 확장기로서 1945-1955, 개발도상지역에서의 권위주의 성립기인 1960-1970년대, 그리고 민주화의 재도전 기간인 1980년대 이후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각 지역의 민주화운동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국제질서가 매년 상존해 왔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국제질서가 계속 변함에 따라 앞으로의 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중요한 연구영역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셋째로, 아시아 및 아프리카의 민주화에 관한 분석은 문화와 종교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데, 이 분야는 최근의 동아시아의 발전가치에 대한 이론적 갈등과 관련하여 개발도상지역의 민주화과정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사이의 관련에서와 같이 문화 자체가 민주주의 생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면, 과연 동양의 유교사상은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가 또 문화적 상대주의에서 벗어난 분석은 가능한가에 대한 이론적 전망을 가져다 줄 것이다.

넷째로, 아직도 이론적 증명을 위한 병렬적 구성에 입각한 개별 사례연구가 많은 데 비해 국가간의 차이점 및 원인을 찾아내어 보다 분석적인 비교역사방법을 적용하는 연구의 수는 그다지 많지 않다는 사실이다. 이는 아마도 사례의 선택 및 범주 선정, 그리고 역사상의 시점에 관한 연구자들의 상이한 준거들의 결과에서 연유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의 세계적인 민주화과정에 관한 연구들에서처럼 유사한 결과를 경험하는 나라들에 대해 단기간의 시간들을 갖고 접근하는 개별분석 혹은 두 개의 사례비교는 다분히 행위자의 행위선택과 그 과정을 강조하는데 반해, 서로 다른 결과들을 갖는 많은 국가들에 대한 장기간의 분석은 각 나라별로 거시적인 사회변동과 아울러 국가간의 차이점을 설명하는 구조적 특징들에 보다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마지막으로, 민주주의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이념체계와 사회구조간의 상호작용에 관한 내용을 미래의 탐구영역으로 남겨 놓고 있다. 이 분야의 연구 역시 먼저 각 사례별 분석이 필요하며 이 결과들은 비교역사방법에 의해 다시 인과론적 틀로 재구성될 수 있다. 민주주의라는 이념체계의 변혁과정과 민주적 제도의 발전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작업은 앞으로의 민주적 개혁의 길과 연관되어 어떻게 민주화운동이 민주주의를 규정하는가에 대해 체계적인 해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분석전략과 방법론적 고려사항은 특히 민주주의와 같은 거시 사회현상을 둘러싼 각각의 역사적인 사건의 중심축을 횡단적으로(cross) 또는 종단적으로(longitudinal) 꿰뚫는 이론적 탐구와 경험적 분석을 위해 하나의 증거들을 제시함으로써 인과론적 주장을 보다 명확하게 해주고 동시에 다양한 이론적 관점들을 통합. 연결시켜 준다. 이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때 비교연구는 방법론적 의미를 가지며 이론과 역사를 매개하는 이상적인 전략으로서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면 이 분석방법은 이론적 확장과 재구성을 통해 구체적인 역사적 사례들에 기초한 민주화과정에 대해 질적으로 진전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 줄 것이다.

참고문헌

- Abbott, Andrew(1994), "History and Sociology: The Lost Synthesis," in E. Monkkn (ed.), *Engaging the Past: The Uses of History across the Social Sciences*, NC: Duke University Press.
- Aminzade, Ronald(1992), "Historical Sociology and Time," *Sociological Methods and Research* 20: 456-80.
- Bendix, Richard(1964), *Nation-Building and Citizenship*, New York: Wiley.
- Gurr, Ted(1968), "A Causal Model of Civil Strife: A Comparative Analysis Using New Indice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2: 1104-24.
- Hall John(ed.)(1997), *Reworking Class: Cultures and Institutions of Economic Stratification and Agency*,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Hannan, Michael and Carroll Glenn(1981), "Dynamics of Formal Political Structure: An Event-History Analysi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6: 19-35.
- Jackman, Robert(1995), "Civil Culture, Inequality, and Democratization Revisited," Davis, CA: University of California, Unpublished manuscript.
- Johnson, Chalmers(1966), *Revolutionary Change*, Boston: Little.
- Lieberson, Stanley(1991), "Small Ns and Big Conclusions," *Social Forces* 70: 307-20.
- Lipset, S. Martin (1959), "Some Social Requisites of Democracy: Economic Development and Political Legitimac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53: 69-105.
- Marsh, Robert(1967), *Comparative Sociology: A Codification of Cross-Sectional Analysis*, New York: Harcourt, Brace and World.
- Mill, John Stuart(1967), *A System of Logic: Ratiocinative and Inductive*,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 Moore Jr., Barrington(1966), *Social Origins of Dictatorship and Democracy: Lord and Peasant in the Making of the Modern World*, Boston: Beacon Press.
- Muller, Edward(1995), "Economic Determinants of Democrac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0: 805-21.
- Olson, Mancur(1965), *The Logic of Collective Action: Public Goods and Theory of Group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O'Donnell, Guillermo(1973), *Modernization and Bureaucratic Authoritarianism*,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Popper, Karl(1959), *The Logic of Scientific Discovery*, New York: Harper & Row.
- _____ (1963), *Conjectures and Refutations*, London: Hutchinson.
- Ragin, Charles(1989), *The Comparative Method: Moving Beyond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Strategies*,

-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Rueschemeyer, Dietrich, Evelyne Huber, and John Stevens(1992), *Capitalist Development and Democrac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kocpol, Theda(1979), *States and Social Revolu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_ (1985), "Bring the State Back In: Strategies of Analysis in Current Research," in P. Evans (et al.), *Bring the State Back I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ewell, W. H. Jr.(1996), "Three Temporalities: Toward an Eventful Sociology," in T.J. McDonald (ed.), *The Historic Turn in the Human Sciences*,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Tilly, Charles(1975), *The Formation of National States in Western Europ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_____ (1995), "To Explain Political Process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0: 1594-1610.
- _____ (et al.)(1995), "Globalization Threatens Labor's Rights," plus responses from I. Wallerstein(et al.), followed by Tilly reply, *International Labor and Working Class History* 47: 1-55.
- Weber, Max(1906), "Zur Lage der burgerlichen Demokratie in Russland," *Archiv fur Sozialwissenschaft und Sozialpolitik*, N.S. 22.

Comparative Historical Research on Democracy: An Inquiry into the Methodological Dimension

Moon-Gi Suh*

This study explores the relationship between capitalist development and democratization based on a critical analysis of the political economic perspective. For a large sample of countries, the new statist's approach, adopting Weberian tradition, argued that capitalist development is associated with democracy because it transforms the class structure, strengthening the working and middle classes and weakening the upper class, and concluded that it was that the contradictions of development that advanced the cause of democracy.

However, when more specific characteristics of development process are considered, some significant effects are found: to what extent, in what ways, and on whose part, are the consolidation of democracy societally determined. In particular support is found for the hypothesis that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wo variables can be converted. Although the historical cure is not taken indiscriminately, the comparative historical investigations can then move to another level of analysis, from heuristically prior static to the dynamics of the emergence, maintenance, and alteration of the internal features in the process of democratization unless escaped from the combined strategy between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methods.

In a diagnosis of inequality and social justice, this study suggests that when accorded analytical priority, comparative historical methods can serve as a beachhead from which to

*Senior Researcher at the Institute of Social Development Policy, Seoul National University. Research Area: Social Change, Political Economy of Development, Social Statistics. Major Publication: *Developmental Transformation in South Korea* (Praeger, 1998)

reconnoiter and then move into the societal dynamic power configurations-state apparatus and its interrelations with civil society and the impact of transnational power relations. It ends by exploring the implications of current findings for the future of democracy.